

인쇄 후가공 분야



자동화 · 고속화로 불경기 타개 노릴 듯

한국의 인쇄 후가공 업계는 여러 해 동안 △ 가격 경쟁에 의한 인쇄 및 후가공 처리 단가의 제자리 걸음(10년 동안 거의 상승되지 않았음) △ 인건비 및 부대경비 상승 △ 인력 수급의 어려움 △ 생산 데이터의 관리 소홀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한국의 관련 업계는 2000년 이후 보유기계를 최신설비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자동화 및 고속화를 추구하고 있다. 자동화된 기계는 인력의 필요를 크게 감소시키며, 시간을 절약해 주고, 생산 데이터의 정확하고 용이한 관리를 보장한다. 또 초고속 기계는 생산성을 높여줌으로써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방면에서 생산 단가를 낮춰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2003년의 불경기를 겪으면서 움츠러 들었던 인쇄 후가공 업계는 2004년 미국 및 일본 시장의 경기회복을 시발점으로 한국의 경기도 회복되라는 예상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각 후가공 분야별 2004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접지분야는 모든 후가공 분야의 기본이 되는 분야로서 늘 풍족한 일감이 있어 불경기에도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는다. 2004년에도 여느 해와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철 제본 분야는 1999년 말 이후 유럽의 최신 중철 제본기들이 다량 수입되어, 현재 한국의 중철 제본 품질은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이전과 비교하여 정밀한 재단 상태 및 정합물에 스크래치가 없는 것 등이 그것이다. 현재 가동되는 중철기의 40% 정도가 최신의 초고속 중철기로서 업계를 리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일반 중철 시장의 수요가 거의 개발 완료된 상태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연계되어 특수 중철 제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철 제본 분야의 전통적인 분야인 학습지나 잡지 제본의 경우, 2004년은 큰 변화 없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가전제품 또는 통신제품의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더불어 무선철 제본된 제품 매뉴얼의 수출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자비용이 고액인 이유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생산을 중국 무선철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출 물량의 경우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몇몇 최신 설비를 갖춘 큰 규모의 회사에 제품 주문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는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서, 만족할 만한 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면 2004년에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사철라인 및 하드 커버 제본 분야의 양장라인은 다이어리, 아동용 서적, 성경책, 수출물량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수요가 매우 안정적이며, 생산 업체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전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신규업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동일한 이유로 현재 기존의 기계가 많이 노후화 되어있어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한국 출판 시장이 성인용 도서보다 아동용 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므로 2004년 역시 꾸준한 상승세가 기대된다.



(이용진 · 물러마티니코리아㈜ 영업부 이사)